

<서평>

『메시지: 신약(영한대역)』

유진 피터슨 저/ 김순현, 윤종석, 이종태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1, 940쪽

이진섭*

스마트폰의 등장은 시대의 변화를 잘 대변한다. 요즈음은 전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보기 힘든 반면, 스마트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고 소통하려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어렵고 딱딱한 책은 인기를 잃고, 만화책은 인기가 점점 높아진다. 성경은 어떨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복잡한 성경은 인기가 많지 않다. 아이패드와 윈도우 8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누가 고대 문서를 옛날 문투로 읽으려 할까? 자연스레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으로 점점 밀려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젊은 세대는 점점 성경과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의 메시지 성경의 출현은 이런 시대의 흐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하나의 시도로 보인다. 시대를 고민한 흔적이며, 시대가 만들어 낸 하나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번역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약』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그 등장 과정과 번역의 틀을 살핀 후, 번역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비평할 뿐 아니라 적절한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번역의 배경과 목표와 방법

1.1. 배경과 과정

유진 피터슨은 철학(BA)과 신학(STB)을 공부하고 썸어를 연구(MA)한 후,¹⁾ 목회 사역을 하며 신학교에서 약 4년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친다(1959-1962).²⁾ 하지만 그는 가르치는 기간 중 자신의 소명이 목회에 있음을 깨닫고, 1962년 학교를 떠나 본격적인 목회의 길로 들어선다.³⁾

피터슨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잘 깨닫게 하려고 애쓰지만, 교인들은 성경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p. 22-23). 특별히 그는 성경 원문의 생생한 의미를 전하려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초 피터슨이 갈라디아서를 연속적으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본문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 준다. 이때 교인들은 이 번역에 큰 관심을 가진다.

이 갈라디아서 번역과 설교는 1988년 출간된다.⁴⁾ 이 계기로 NavPress 출판사가 피터슨에게 신약 성경 전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데(1990년 4월), 그는 16개월의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한다(p. 23). 결국 피터슨은 29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번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1991년 7월). 이후 그는 피츠버그 신학교 집필 교수로

1) 그는 시애틀 퍼시픽 대학에서 철학(BA, 1950-1954)을, 뉴욕신학교에서 신학(STB, 1954-1957)을 공부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썸어 연구로 석사 학위(MA, 1957-1959)를 받았다.

2) 1958년 미국 장로교단(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피터슨은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모교인 뉴욕신학교로 돌아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뉴욕 시(市)의 화이트 플레인스 장로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하게 된다.

3) 피터슨은 이때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Christ Our King Presbyterian Church)를 시작하여 이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29년 동안 이곳 목회자로 사역한다.

4) E. H. Peterson, *Traveling Light: Modern Meditations on St. Paul’s Letter of Freedom* (Colorado: Helmers & Howard Publishers, 1988).

제작하며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1993년 *The Message: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Language*를 출간한다(한국어판 『메시지: 신약』은 ‘복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2010년 3월 출간된다). 1993년부터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 신학 교수로 사역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 번역하여 결국 2002년 신구약 완역본을 출간한다.⁵⁾

1.2. 목적과 목표

『메시지』 성경의 목적은 읽혀지는 것이다. 이 목적은 『메시지』 머리말의 첫 문장, ‘읽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p. 25). 읽히지 않는 성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피터슨에 따르면 성경을 공부할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기에, ‘우선은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은 다분히 그의 목회 사역 경험을 반영한다.

이 목적은 두 가지 세부 목표와 이어져 있다. 첫째는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읽히려면 쉬워야 하고 가까이 있어야 한다. 피터슨은 원래 성경이 쉬운 책이기에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다(pp. 26-27). 그는 ‘쟁기로 밭을 가는 소년’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의 말을 인용하며 자기 번역이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p. 27). 둘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쉽게 읽혀진 성경은 자연스레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은 성경이 인격적으로 읽히도록 만드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신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 피터슨의 번역 성경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아마도 책 제목을 ‘메시지’로 정한 것은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인지 모른다(p. 29).

5) 김영봉(피터슨, 『메시지: 신약』, 30)에 따르면, 피터슨은 약 10년 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을 투자해 이 대작을 완성했다고 한다.

1.3. 방법과 형식

피터슨은 이런 자신의 의도를 세 가지 기본 틀로 담아내려고 한다. 첫째, 타 번역본의 영향을 받기보다 원어에 치중하여 그 의미를 현대화하는 방식이다(p. 23, 30). 성경은 원래 일상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에 원어를 직접 대면하면 오히려 일상적 언어로의 복귀가 쉬워질 수 있다는 신념이 그에게 작용했을 수 있다. 피터슨이 썬어를 연구한 후, 신학교에서 4년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친 경험은 이런 원칙을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절(verse) 구분 없이 번역하는 것이다. 원래 성경은 장절(章節) 구분 없이 쓰였기에 원래 형식은 장절 구분을 초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장절 구분은 일상 언어로의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그는 번역할 때 장(章) 구분은 남기더라도 절(節) 구분은 피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문단(paragraph) 단위로 절을 표시하는 방법을 택한다.⁶⁾

셋째, 본문 전에 책을 소개하는 머리말(소개 글)을 쓰는 방식이다. 머리말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과 특징, 요점 등을 간략히 제시하며, 보통 해당 책의 본문 일부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가장 먼저는 신약 성경 전체 머리말이 있고, 각 책 본문 전에 머리말이 소개된다. 일부 책의 머리말은 묶어서 제시된다(테살로니가전후서, 디모테전후서, 디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2. 번역의 특징과 성격

『메시지: 신약』의 특징과 성격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6) *The Message Remix*에서부터는 문단 단위로 절을 기록한다. 한글 『메시지: 신약』은 이 방식을 따른다.

첫째는 신약 성경을 세 가지 종류의 글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터슨은 신약전서 전체 소개말에서 신약 성경이 ‘목격담, 개인적인 편지, 환상의 시’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p. 38). 신약 성경을 5개의 이야기(4복음서와 사도행전)와 21통의 편지(바울서신과 그 외 서신서), 그리고 한 편의 시(요한계시록)로 이해한다.⁷⁾

또 다른 특징과 성격은 사용된 언어에 있다. 『메시지』는 생생한 표현과 현대적 언어를 활용한다. 예컨대,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쳤다’(ἐλιθοβόλουν τὸν Στέφανον, 행 7:59a)라는 문장을 ‘돌이 비 오듯 쏟아 지는데’(As the rocks rained down)라고 생생하게 묘사한다든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 모두’(πᾶς ὁ λέγων μοι· κύριε κύριε, 마 7:21a)라는 말을 ‘암호(password)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라고 현대적 감각으로 쓰기도 한다.

셋째, 직역(直譯)이 아니라 의역(意譯)이라는 점이다. 원어 각 단어의 의미를 살리는 데 얽매이기보다 원문 전체의 뜻을 살려 번역한다. 일종의 변안(變案) 의역인 셈이다.⁸⁾ 예컨대,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ἐξεπλήσσοιτο οἱ ὄχλοι ἐπὶ τῇ διδασκίᾳ αὐτοῦ, 마 7:28b)라는 표현은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번역된다. 또한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막 3:29)라는 말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 버리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전체 의미를 전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자연스럽게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7) 요한계시록을 한 편의 시로 보는 시각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8) 김영봉은 한글 『메시지: 신약』의 ‘감수의 글’에서 이 번역이 변안 의역임을 지적한다(p. 31).

따라서 자연히 원문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⁹⁾ 예를 들어, 마태복음 4:5-6의 번역에는 원어에 없는 설명, 즉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라는 말을 추가한다. 특별히 압축적으로 쓰인 본문, 예컨대 ‘산상수훈의 8복’(마 5:3-10)이나 로마서 3:21-26, 27-31 등과 같은 함축적, 신학적 진술은 그 설명의 양이 길어지고 표현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3. 번역의 장단점

3.1. 장점과 유익

이런 특징과 성격은 자연히 이 번역의 장단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¹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읽히는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종종 난해하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듯 보인다는 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 신약』에는 이런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이 번역이 가진 언어적 특징이 독자들에게 하여금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인식하게 한다. ‘리모델링’(마 7:24),¹¹⁾ ‘1센티미터’(영어로는 ‘an inch’,¹²⁾ 눅 12:25), ‘뿡’(마 4:3-4; 눅 4:4) 등과 같은 현대적 표현은 독자가 이 성경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로

9) 본 서평의 대상이 된 『메시지: 신약/영한대역』은 940쪽이며, 한글만 있는 『메시지: 신약』(2011)도 798쪽이다.

10) 한글 『메시지: 신약』 번역의 장단점을 고찰하려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피터슨의 영역본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하나는 한역본에 대한 평가이다.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어떤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본고는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도 필요한 자리에서는 구별하여 평가한다.

11) 이 표현은 한역본에 나타나는 표현이다.

12) 한글 『메시지: 신약』에서 영어의 ‘an inch’를 ‘1센티미터’로 바꾼 것은 메시지 성경의 의도를 잘 반영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작용한다.

두 번째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생생하고 현실적인 언어 표현은 독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해 준다. 또한 설명식 번역이라는 특징은 본문을 읽을 때 해석의 필요를 잘 느끼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문의 모호함을 없애주기에 독자들은 성경을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1은 해석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구절이지만, 본 번역은 그런 문제를 잘 느끼게 하지 않는다.¹³⁾

셋째, 자연스레 이 번역은 독자로 하여금 성경 본문을 깨닫는 시간을 단축하게 해 준다. 이는 의역이 갖는 기본적인 장점이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이미 해석을 하고 있기에 독자는 스스로 해석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독자는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읽으면 된다. 즉, 독자의 해석 시간을 줄임으로 빨리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은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본문 해석에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한 두 구절 해석에 너무 깊이 몰입하게 되면 본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틀과 시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쉽고 빨리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독자가 한 두 구절이나 한두 문단에 머무르기보다 본문 전체를(적어도 한 장, 한 책을) 조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히 독자는 시야를 넓혀 본문 전체의 숲을 보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¹⁴⁾

13)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간명하게 번역한다. 이 구절의 어려움과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이진섭, “고린도후서 5:1의 “영원한 집”,」 『성경과 교회』 10 (2012), 123-156을 참조하라.

14) 물론 이 숲이 독자 자신의 것인지, 번역자의 것인지는 논의되어야 한다.

3.2. 단점과 한계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점은 때론 여러 단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은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적 뜻에 충실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원래 역사적 의미를 잘 밝혀내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메시지』 성경은 역사적 의미를 찾아 현대적 뜻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그 전환 작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언어로만 표현하려다 보면, 원래 언어로 누리려던 효과와 도전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스플랑크논’(σπλάγγνον,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로 누리려던 효과와 의미는 사실 『메시지』 성경에서 감춰되어 사라져 버린다(문 7, 12, 20절).¹⁵⁾ 또한 현대적 뜻과 의역에 집중한 것이 종종 원어의 논리 접속사를 무시하게 하거나 원래 잘 짜인 문단 구성을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 『메시지』 성경에는 원어에 있는 논리 접속사가 상당 부분 번역되지 않았는데(예컨대, 롬 5:1, 12; 빌 2:14; 4:1 등), 이는 원 저자의 논리를 무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래 문단이 해체되면 문단의 전체 논리를 오해하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 예컨대, 로마서 2:6-11은 아주 잘 짜인 단단한 문단인데, 『메시지』 성경은 이 문단을 해체함으로써 바울이 이 문단을 활용함으로 전개하려던 논리를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만든다.¹⁶⁾ 이런 문제들은 독자가 본문의 원래 의미를 오해하게 하는

15)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성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7절)과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20절) 사이에 오네시모가 자신의 ‘마음’(‘스플랑크논’, σπλάγγνον)이라고 말함으로 결국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매우 강렬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란 뜻도 되는 것을 상기하면 바울 요청의 무게가 더욱 느껴진다. 참조. 이진섭, “빌레몬서 수신자 찾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예,” 『성경과 교회』 11 (2013), 135, nn. 19, 20.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원래 메시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16) 『메시지』는 로마서 2:5-8과 2:9-11을 구분되는 문단으로 처리함으로 이런 문제들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계는 원래의 메시지를 현대화할 때 왜곡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의역을 하는 과정에는 의미를 현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처리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 있다. 『메시지』 성경이 베드로와 요한을 ‘평신도’(laymen, 행 4:13)라고 표현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religious leaders, 행 4:21)로 규정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현대 교회의 틀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쉬울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로서 이미 교회의 지도자(사역자)이기에 현대 교회 용어인 ‘평신도’라는 용어가 이들의 존재를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대교를 기독교 용어로 묘사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을 묘사하려는 본문의 의도를 이런 번역이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문은 이미 교회가 시작되어 유대교와 갈등을 빚는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앞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번역자의 시각과 틀이 『메시지』 성경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의역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이다. 직역이 성경 저자의 시각과 틀을 가능하면 그대로 드러내려는 반면, 의역은 번역자가 이해한 성경 저자의 시각과 틀이 제시된다. 따라서 독자가 일차적으로 읽게 되는 것은 번역자의 신학과 틀일 수 있다. 예컨대, 현대 바울 신학계는 율법과 믿음 주제와 관련하여 바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그런 논의에 대한 번역자의 입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따라서 독자는 본문 자체의 의미를 고민하기보다 번역자

만든다.

17) 예를 들어, 『메시지』의 로마서 3:27-28은 ‘교만한 유대인들’의 자랑이란 틀에서 번역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2:15-16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句)를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에서 번역한 것이다. 현대 직역 번역(예, NRSV)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句)에 대한 주격적 소유격 번역을 각주로 추가하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 입장을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또한 의역이 갖는 생태적 한계이다. 더구나 『메시지』는 부가적 설명이 추가된 번역이기에 본문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자연히 『메시지』는 통독에는 도움이 되지만, 본문을 연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는 데에는 유익이 있지만,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여 깨닫는 것에는 도움을 주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점은 더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쉽게 읽고자 하는 습관에 빠지게 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글 번역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한역본 『메시지』는 영역본 *Message*가 가진 특성을 잘 따랐지만, 몇 가지 점이 더 고려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한역본은 영역본의 현대적 어법을 잘 따라 번역했다. 하지만 ‘역사’(役事, 마 3:15) 같은 표현을 남겨둔 점은 그런 원칙과 잘 맞지 않는다. 이 단어는 ‘행하심’이나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역본의 의미가 뒤틀리거나 변형된 경우도 간혹 있다. 예컨대 영역본이 ‘a daily discipline’(행 2:46)이라고 표현한 것(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보여준 바른 신앙 습관의 모습)을 한역본은 ‘하루 일과’로 번역함으로 당시 신자들이 예배 모임과 찬양만하고 지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다. 또한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벧전 3:20)라는 문장 앞에는 (영역본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뺀 경우 전후 문맥상 ‘예수’가 주어로 오해될 수 있다. 영역본의 ‘the prophet’s embryonic sermon’(마 1:22)을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로 번역한 것은 ‘예언자의 잉태 설교’로 바꾸는 것이 낫다. 전자로 번역하면 예언자가 설교를 만들어 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역본은 선지자가 동정녀 잉태를 예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 어법이나 어투가 어색한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 한역본의 사도행전 첫 머리는 우리말의

존대 어법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어색하게 된 경우이다. 데오빌로 각하께 존대어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다’체로 바뀌는 어색함이 있다(영역본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은 2절 끝이나 3절 시작 부분에 ‘이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한역본에 넣는 것이다. 사도행전 9:23의 ‘긴 시간이 흐른 후에’(After this had gone on quite a long time)라는 표현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가 우리 어법과 어투에 더 적절하다. 영어의 ‘형용사+명사’ 형태는 한글로 번역할 때 직역하기보다 형용사를 부사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컨대, ‘혹독한 고난’(hard suffering, 행 9:17)은 ‘혹독히 받을 고난’으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That set off a terrific persecution, 행 8:1)는 ‘박해가 무섭게 시작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역본이 굵은 글씨체를 특별하게 사용한 것도 짚어볼 일이다. 영역본은 본문에 message란 단어를 굵은체(bold)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한역본은 유독 ‘메시지’란 단어를 굵게 썼다(예컨대, 빌 1:12, 16; 몬 13절 등). 아마 본 번역본의 제목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추측되지만,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영역본 요한계시록 1:4에 대문자 단어로 쓰인 문장을 한글에서 굵은체로 표기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영역본 요한계시록 1:8에 있는 동일한 대문자 단어 문장(주님의 말씀)을 한역본에서 굵은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교정이 필요하다.

4. 활용 방법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단점을 가진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세 가지 방향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 첫째 방향은 병행 읽기이다.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이 있다. 직역

이 있고 의역이 있을 뿐 아니라, 의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메시지』는 의역 중에도 설명을 곁들인 일종의 변안 의역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읽지 않은 채, 『메시지』만 읽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읽기 방식이다.¹⁸⁾ 하지만 다른 번역본과 함께 읽는다면 이 번역본이 가진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메시지』 성경은 다른 번역본과 병행하여 읽어야 한다.¹⁹⁾

둘째, 병행하여 읽을 때 이 번역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읽어야 한다. 특징과 장점을 잘 알고 단점과 한계를 잘 이해할 때, 이 번역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번역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힘들다. 또한 장점을 잘 깨닫고 있지 않으면, 그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없다. 장단점을 잘 알고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무시하면 독이 된다.

셋째, 몇 가지 활용 국면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메시지』는 새 신자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자 할 때, 또는 청소년이 청년대학생으로 자라가며 이해력이 커져갈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았거나, 고대 문서인 성경에 대한 현대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다. 일반 신자의 경우는 통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역 성경은 연구용으로, 『메시지』는 전체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설교자들에게도 본문 주제를 거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나, 청중에게 맞는 현실적 적용을 찾는 과정에 『메시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는 『메시지』를 여러 번역본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적절히 활용할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접수일 2013년 8월 20일, 수정일 2013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13년 9월 7일

18) 이런 점에서 『메시지』를 예배 공식 번역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19) 김영봉(『메시지』, 31)은 감수의 글에서 이런 점을 적절히 지적한다.